

전화만으로 숨은 신천지 환자 찾을 수 있을까

광주시청 공무원 총 동원령
신천지 신도 통신조사 착수
본인 진술에만 의존 한계성
응대 거부땀 확인조차 못해
교육생은 문진 대상서 빠져
방문 조사로 발열 측정해야



이용섭(왼쪽 두 번째) 광주시장이 27일 광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병내 남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과 함께 '코로나19 초기 대응 평가 및 향후 조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건네받은 신천지교회 신도 명단을 토대로 지역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4면)

광주시는 27일 오전 업무개시와 함께 본청은 물론 종합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등 직속기관 신하 소속 직원들까지 총 동원해 전화 문진을 시작했다.

통보받은 신천지 교회 신도 수는 2만2천880명으로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2만6천715명보다 약 4천명 가량 부족하다. 여기에다 5천578명으로 추정되는 예비신도 개념의 신천지 교육생들도 빠져 있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신천지교회 신도들이 외부인의 전화에 잘 응대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더라도 신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경우 전화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쨌든 일명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신천지교회로 확인된 만큼 전화 문진에 동원된 1천400명의 공무원들은 수만명이나 되는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단 통화가 연결되면 인적 사항 등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이나 유·초·중·고 교직원 등 고위험 직업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어 지난 16일을 전후로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방문 여부는 물론 광주 확진자가 거쳐 간 남구 주월동·월산동 교육센터에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뒤에는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발열, 기침, 목 아픔 등 증상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유증상자가 나오면 곧바로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게 한다.

이처럼 전수조사는 호흡기 질환과 신체 발열이 있는지 등 건강상태를 점검해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감

염됐을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주요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행적이 불명확하거나 이상 증세가 있으면 분류해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

광주시는 우선 통화가 연결된 신도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치고, 결과 확인과 함께 2차 조사에 들어간다. 두 차례 전화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재를 파악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인 진술에만 의존한 소극적 전수 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보된 명단의 신도 수가 애초 알

려진 것보다 적고 교육생이 명단에서 빠진 점도 전수 조사의 신뢰도나 완결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도 있다.

아울러 확인 대상 신도들이 아예 수신하지 않는 경우를 차지하더라도 전화로 답변할 때 위험 지역 방문 여부나 확진자 접촉 사실, 증상 발현 등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확인된 대상만이 라도 방문 조사를 통해 가족까지 발열 등 증상 측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유증상자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전수 조사의 효과를 높이고 신천지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전화 조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주소지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석 기자

총선 연기론 공개 제기

민생당 "코로나 극복 전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 중심 3당이 모여 출범한 민생당은 27일 국회에서 합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5 총선 승리를 다짐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총선 일정을 늦춰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양 극단의 낮은 정치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기득권 양당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공동대표는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선수도, 나이드 많은 제가 회의를 주재해야 당연하지만 참신하고 젊은 김 공동대표에게 회의를 이끌어달라 요청했다"며 "발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 박주현 공동대표도 "선거를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가능한 한 뒤로 연기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농업인 월급제 지원자 모집

전남도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농산물 예상 소득의 60% 범위 이내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할 시·군은 해당 농협과 2월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참여 희망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 시기에 따라 6월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벼·양파·마늘·포도·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소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 기준면적을 지난해 4천 100㎡에서 올해 3천 500㎡로 신청 기준을 낮췄으며,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급시기도 매월 지급한 방식에서 매월·격월·분기로 농가 희망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앞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최저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허성은 기자

전남도 '대규모 숲 조성' 블루 이코노미 선도

10년동안 1천 500억원 투자...경관·소득 1석2조 효과 노려

전남도는 앞으로 10년간 1천 5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숲 조성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민선 7기 핵심 프로젝트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선도 사업으로 남도의 하늘, 바람, 섬, 땅이 어우러진 대표 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해부터 빠르게 신규사업을 발굴해 기존 사업을 확대·보완코자 올해 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숲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경관숲'은 남도의 역사·문화·인문이 어우러진 해양숲과 관공숲, 지역특화숲 테

마로 꾸민다.

또 '소득숲'은 지역의 기후·산업화를 고려한 전략 수종을 소득과 연계해 견과류 단지, 밀원단지, 약용단지로 특화해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경관숲'은 7개소에 대표 콘텐츠 테마 숲으로 조성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해양숲 2개소는 서남해 중심 △관공숲은 해남 두륜산 오색숲 △지역 특화숲 4개소는 영암 월출산 주변 가천곶길 향기숲, 보성 일립산 산철쭉 숲, 담양 죽녹원과 연계한 제의 대나무 힐링숲 등이다.

특히 해양숲은 올해 신규 국고사업으로

확정돼 2029년까지 16개 시·군 3천 700ha에 3천7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신안군에 1천ha 규모의 대표숲을 조성하며 올해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 훼손된 난대숲을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숲'은 6차 산업화와 연계코자 △영광 견과류 웰빙숲 500ha △화순 별골숲 30ha △광양 봉강면 일원 10ha에 복분자단지를 조성하며, 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담배인삼공사에 전량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 서러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 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 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지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